



##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사랑을 위한 기적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조직신학교 교수 고 벨카우어(G. C. Berkouwer) 박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불신앙의 표식”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언급이 많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으며 기적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왜 불신앙을 뜻하는가?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기적이 기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유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교에서 기적을 인정하고 중요시한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막 13:22) 하시고 바울 사도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사단의 역사”일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살후 2:9)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직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기적은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나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일상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현상은 모두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안수기도로 병이 나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의사가 약이나 수술로 환자를 고치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지 않거나 이신론(理神論, deism)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록 창조는 하셨지만 그 후에는 자연의 법칙에 맡겨두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 10:29)고 하셨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고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 의사가 말했듯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에 있음을 함축한다. 만약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후에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판명되면 믿음을 버리고 말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이 나은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니 긴장을 풀고 좋은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병이 나왔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전반적으로 기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전 1:22-23)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구한 표적은 기적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모든 기적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기적이다. 인간은 모두 병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종교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병 고치는 기적에 대한 가르침이나 의례가 있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그런 소원을 반영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적도 거의 대부분 병 고치는 것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기적도 병의 치유와 관계가 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물론 폭풍을 잠잠케 하거나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는 것도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에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인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5) 말씀하셨다. 즉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메시아는 단순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 받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다. 즉 병 고치는 기적에는 능력의 과시보다는 사랑과 자비의 요소가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적은 귀신도 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도 행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없다.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전 13:2).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를 그것에 둘 정도로 기적을 과대평가 하거나 사랑의 요소가 결여된 채 병 고침 그 자체나 능력의 과시에 초점이 놓인 신유는 기독교적이라 할 수 없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b>대표주간</b>	<b>손봉호</b>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b>발행인</b>	<b>김승욱</b>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b>편집위원</b>	<b>강진구</b>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b>김정호</b>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b>김태황</b>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b>박상은</b>	인양생명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b>송인규</b>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b>신국원</b>	충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b>우종학</b>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b>이승구</b>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b>조성돈</b>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b>조영길</b>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b>조정민</b>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b>실무진</b>	<b>이원우</b>	미디어펜 기자, 시사주간 미래한국 (前)편집장,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의 밤 젊은 자유인상 수상
		<b>황정희</b>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b>신효영</b>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충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이원우 기자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b>이사회</b>	<b>이사장</b>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b>부이사장</b>	김의원 (前)충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b>이사</b>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충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b>감사</b>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b>실행위원회</b>	<b>위원장</b>	김태황 (명지대 교수)
	<b>부위원장</b>	박동열 (서울대 교수)
	<b>위원</b>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생명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충신대 교수), 신국원 (충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충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Contents

WORLDVIEW · JULY · 2015

# WORLDVIEW

2015년 7월호 WORLDVIEW 통권 181호



표지인물 김정환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과학과 신학, 어제와 오늘\_김정환

- SPECIAL**
- 02 대표주자 사랑을 위한 기적\_손봉호
  - 20 기획칼럼 치유와 치유 집회 어떻게 보아야 할까?\_이승구
  - 24 기획칼럼 혼합된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_이상원
  - 28 기획칼럼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_정동섭
  - 32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COLUMN** 34 메디컬칼럼 Cure & Care 속 편한 독백\_최현일

- CULTURE**
- 38 땀속이 만만 울타리 밖의 책 아담이 태어날 때 나도 태어난다
  - 54 편집# 둘 다 옳을 수는 없어요\_신효영
  - 56 유머 건전한 판단\_손봉호

- BOOK REVIEW**
- 40 서평 일상영웅\_이상원
  - 44 서평 권리와 자유의 역사\_김철
  - 47 서평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_윤완철

- NEWS**
- 52 사무국 뉴스
  - 53 7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 자** 이종원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거진** m.worldview.or.kr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과학과 신학,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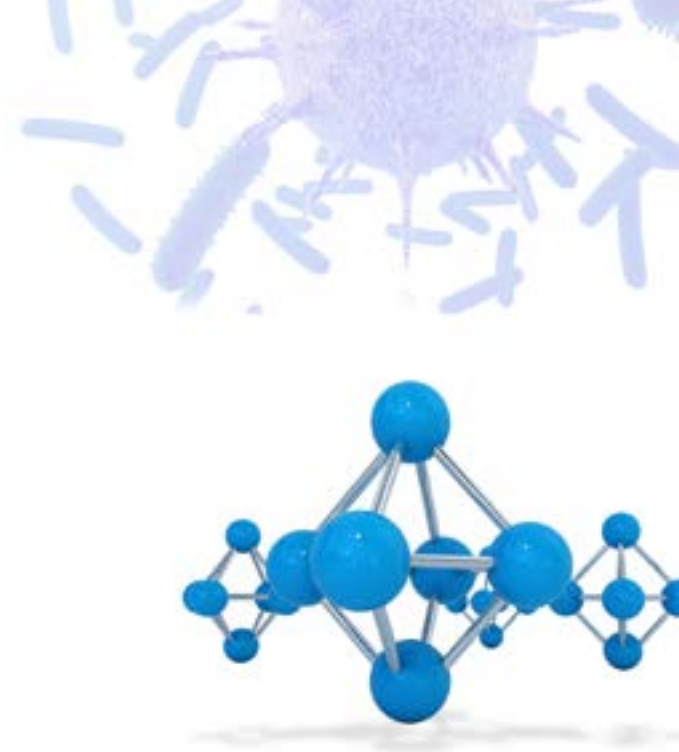
## 김정한 교수에게 듣다

한국창조과학회 창립 멤버이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정한 교수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본지 편집위원)가 만났다.

**우종학(이하 우):** 과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한(이하 김):** 6.25 사변 당시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시골에 사는 누나 집으로 피난을 갔었지요. 마당에 놓인 평상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눈을 떠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는 성경도 몰랐고 기독교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Why there is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이라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고 신비한 곳이구나 싶었죠. 과학자가 되면 이 모든 세상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어느 분야를 택할지 고민하다가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연결하는 화학을 택했지요.

**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 외갓집에 갔는데, 그때는 마당을 지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새벽에 가로등도 없는 시골 밤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 광대한 우주가 존재하려면 뭔가 이 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 생명의 화학적 기원을 연구하고자 미국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1950년대 초 시카고대학 유리(J. Urey) 교수의 대학원 학생인 밀러(Stanley Miller)가 “원시대기가스”에서 전기 방전을 통해 몇 가지 아미노산을 포함한 간단한 유기물질을 합성하고, 왓슨(James. D. Watson)과 크릭(F. Crick)이 유전자의 이중나선(The Double-Helix)구조를 발표하자, 당시 언론에서는 생명의 기원과 생명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생명의 화학적 기원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휴스턴대학의 오로(John Oro) 박사의 지도 하에 연구와 실험에 몰두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점점 회의에 빠졌고, 마침내 지도교수와 연구분야를 유기합성화학으로 바꾸었지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천연물 유기합성”으로 논문도 쓰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연구소(SRI)로 옮기게 되었고요.



**우: 이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김:** 그전에는 박사가 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문제의 답을 알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내 전공 분야는 조금 알게 되었지만, 사실 과학이 전문화되고 엄청나게 광범위하잖아요. 뉴턴의 말처럼 자기가 아는 것은 이 망망대해와 같은 무지 가운데서 조약돌 몇 개 주운 거라는 거였죠. 모르니까 다 아는 줄 알았지, 막상 공부를 하고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허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 교육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생명진화론자가 되어 있었고, 생명의 화학적 기원을 연구하면서 실험실에서 터득한 “개인적인 지식(Personal knowledge)”이 진화론에 대한 “공유된 상식에 기초한 지식(Common shared knowledge)”으로 허구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김:** 삶에 대한 회의와 실의에 빠져 있던 어느 주일날 아파트 관리인이 자기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팔로알토 나사렛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지요. 그 후 몇 번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오는 다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 공부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 인생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 생명기원 연구, 스탠포드 연구소와 팔로알토 나사렛교회, 변화된 크리스천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우: 과학자로서 답을 얻지 못한다는 실망감도 있으셨겠지만, 삶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는지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 직업에 대한 불안감,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되지는 않으셨는지요?**

**김:**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박사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외유치 과학자로 키스트(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있으면서 키스트와 카이스트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도자가 바로 하용조 목사였는데 이후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성경공부 그룹을 모아 교회를 만들게 되었지요. 그때 함께 성경공부로 모인 열한 가정이 지금의 온누리교회 창립 멤버예요. 그중 김경례 교수가 당시 “온누리”라는 교회명을 지었고요.

당시 가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을 모시고 예배드렸었는데, 초창기 과학자들만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한





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열한 가정 모두 과학자였거든요. 그 후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이전하고, 한동대학이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졌지요.

**우:** 교수님은 『과학자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야기』(IVP, 1997)를 출간하셨습니다.

**김:** 당시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은 온누리교회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내용 중 창세기 1~11장까지의 내용이 『과학자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야기』로 출간된 것이지요.

**우:** 창세기를 가르치실 때 주로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췄나요?

**김:** 창세기 1장~11장의 핵심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정리됩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logos)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런 수많은 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과율에 따른 철학적 추론으로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했지요. 우리가 인과율을 가지고 만물의 존재를 따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원인이 없는 원인(cause without cause), 즉 궁극적 원인(uncaused cause)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또 공부하나 안하나 모두가 수궁하는 철학적 추론은 없지요. 바로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창세기는 물론 성경 전체의 키워드(keyword)입니다.

**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이군요.

**김:** 그러나 창세기는 우주와 피조세계에 대한 단순한 지침서(manual)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전

체 분량의 80%는 이 네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경 어느 책보다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잘못을 용서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 그중 야곱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죽기 직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주신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인생지침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기계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사용지침서를 받잖아요. 매뉴얼을 읽고 그대로 잘 사용하면 그 기계를 목적에 맞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지요. 창세기는 바로 그런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우:** 정리하자면, ‘창세기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둘째 12장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 준다’ 그렇게 가르치셨군요. 히브리서 11장의 구름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 이제 과학과 성경과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보다는 창세기 1, 2장이 과학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창세기 1, 2장을 과학과 연결시켜서 볼 때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역사, 생명의 역사, 지구의 역사하고 창세기 1, 2장에 기술된 내용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 2장의 창조기사를 과학적 읽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최근 한국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히' 진행된 한국창조과학회의 활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1970년대 후반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서 대전도집회를 하면서, "창조과학(The Creation Science)"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우:** 창조과학에도 여러가지 입장이 있는데, 한국에 수입된 창조과학은 미국의 헨리 모리슨(Henry Morrison)을 중심으로한 창조과학(Creation Science), 즉 과학적 창조론(Scientific Creationism)으로 불린 입장이지요. 과학을 통해 성경을 증명하거나 변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김:**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창세기 강의를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소개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키스트의 아주 용한 박사님이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귀한 시간(...)'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그런 걸 전공하지도 않았고 지구 연대도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기보다 그저 창세기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나는 우선 '창조과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이름(a misnomer)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과학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어떻게 이해할까'가 중요하죠. 신학적이든, 철학적이든 말입니다. 과학은 문제의 접근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과학은 무게, 길이, 시간 등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과학연구의 대상은 측정이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주의 시작과 기원, 생명의 기원과 종의 다양화(종의 기원) 등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 추론된 사건이지, 현재 반복적으로 관찰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기원 과학'은 엄격한 의미로 과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과학적 접근이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연구대상이죠. 신학자나 철학자는 자신들의 연구 룰(rule)이 있고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의 고유한 연구의 틀이 있는데, 서로가 맞붙으면 서로 용납이 되지 않는 논쟁밖에는 안됩니다.

사실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은 17~18세기 동안 소위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이 문제를 잘 정립해 놓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미국의 청교도 근본주의자들이 "다윈의 진화설"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인데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면서 성경 창세기의 창조기사도 하나의 가설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정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지요. 물론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창조과학자들의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지만 말입니다.

돌이켜 보면, 특히 초기 한국창조과학회는 과학사, 과학철학,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한 것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을 포함하여, 특히 초창기 한국창조과학회의 간사로 헌신했던 양승훈 교수, 조덕영 목사를 중심으로



창조신앙을 회복하지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쏟아진 물은 도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 핵물리학자가 핵물리학에는 정통하겠지만, 핵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지요. 자기 분야를 넘어서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첫째, 최소한 과학의 물을 알고, 두 번째는 자기 분야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과학자에게 중요한 자세겠습니다.

**김:** 이미 말한대로 뉴턴 같은 위대한 천재 과학자도, ‘이제 내가 조금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지더라’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학문과 세상을 향해 항상 겸손해야지요. 뉴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아마, 갈릴레오, 케플러…)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뉴턴이 ‘거리의 역제곱 법칙’으로 알려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자 동료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로질러 작용한다는 ‘중력’이 도대체 무엇인가?”하고 물었

습니다. 뉴턴은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창조주에게 물어보라(Ask God!)”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뉴턴도 ‘우주의 공간은 균일(homogeneous)하고, 우주 시간의 흐름은 항상 일정(constant)’하다는 소위 절대공간(absolute space), 절대시간(absolute time)의 가설을 기초로 자신의 역학법칙을 수립했지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을 기초로 확립된 뉴턴의 ‘고전역학’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 선생 당신은 우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공간의 모양과 시간의 흐름을 측정해 보았나요?’ 하고 도전했습니다. 이 도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켰고 뉴턴의 고전역학을 수정하게 만들었지요.

**우:** 최근 과학 때문에 신앙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무기로 삼아 ‘과학을 봐라. 신의 흔적은 없다 자연법칙에 따라 어떤 우주나 생물의 역사가 진행되었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고 신이 창조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기독교를 공격하다 보니 청년 크리스천들 가운데 과학의 권위에 눌러서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창조과학은 오히려 지구의 연대나 화석의 증거, 우주팽창 등 과학의 상당부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주나 지구의 연대나 생물의 이야기를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고 지구의 나이가 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모순된 얘기를 듣다 보면, 학생들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교회 교육과 리더훈련도 잘 받던 청년이 이런 책들을 읽고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거나, 주일학교 잘 다니던 애가 중학교 가더니 교회가 거짓말을 한다며 안 나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해진 것은 2,30년 전과 다르게 과학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과학과 신학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김: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양 지성사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두고 긴 논쟁의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3세기 초 터툴리안(Tertullianus)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선언했지요.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상관없다는 의미였는데, 서양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서양과학은 기독교의 산물입니다. 중세 초기에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결합하면서 신플라톤 철학(Neo-Platonism)이 탄생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현상의 세계)은 하나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완전무결한 진짜 원형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바티칸 대성당의 시스틴 채플에 있는 라파엘로의 벽화 ‘아테네 학당’을 보면 이 비밀을 알 수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란히 서 있는데, 플라톤의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소위 ‘암흑시대’로 불리는 중세 동안에도, 기독교 지성인과 사제들은 수도원과 성당에서 하늘에 있는 이 비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한 것이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갈릴레오(G. Galilei)와 교황청 간의 갈등 말입니다. 교황과 갈릴레오의 갈등은 코페르니쿠스(N. Copernicus)의 소위 ‘지동설’이 천문계산을 위한 하나의 ‘가설’이라는 교황청의 입장에 반하여, 갈릴레오가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선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황청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갈릴레오는 매일 반복되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그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위증인 셈이 되었지요. 후에 뉴턴이 조수간만의 차이는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증명했거든요. 크게 보면 지동설도 옳고 천동설도

옳은 것이지요. 하늘이 있는 천체들은 모두 바빠 움직이고 있거든요.

갈릴레오는 교황청과 과학 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유명한 제언을 했는데, 나는 이 갈릴레오의 제언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두 책을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말씀으로 주신 성경책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별이나 지상의 생명을 포함하는 소위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지, 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책은 알파벳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삼각형, 원 그리고 숫자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했지요.



라파엘로의 벽화 (아테네학당(Scuola di Atene))

우: 이런 질문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질문이죠. 과학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 측정 가능한 양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질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가변성, 즉 과학이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

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 체계인가를 물을 때, 과학이 제시하는 이론들이 쉽게 상대적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자연이라는 실제에 조금씩 다가가는 하나의 근사(approximation)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학자인 우리가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어진 시간과 한계 속에서 좀 더 실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자연이라는 책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기록들,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단 한 번에 일어난 그 창조의 역사가 동위원소측정이라든지 여러 기술들로 이제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사회 내에서 반론들

이 많지만, 그중 하나 기원과학, 기원(origin)에 관한 과학은 과거의 일이고 좀 더 역사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지구의 나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펼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의 연대와 같은 문제는 측정과학의 한 영역이며, 우주라는 광활한 시공의 세계와 연결해서 거시세계, 거시 구조, 시공간 구조로 나아갔을 때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 물론이지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어도 과학자는 아니지요. 과학에서 특히 귀납적 방법(Inductive method)으로 도달한 결론은 그 진위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죠. 뉴턴의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그리고 양자역학들이 현실 또는 실재(reality)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즉 참(truth)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계속 설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We use it, because it works and is still productive).

그런데 측정된 정량적인 데이터 자체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Tycho Brahe)는 매우 정밀하고 방대한 행성운동의 측정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케플러(J. Kepler)가 그 자료 특히 화성의 궤도운동을 분석하여, 화성은 '플라톤의 요청대로'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3가지 행성운동의 법칙을 유도하기 전까지는 주로 점성술의 자료로만 사용되었지요. 측정된 정량적인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방정식을 풀어서 해(solution)를 얻고, 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추리,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만든 방정식들이 가끔 그것을 만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리물리학자 맥스웰(J. Maxwell)은 자신이 만든 전자기 방정식의 해를 구했는데, 그중 하나가 '움직이는 전자는 주위에 일정한 속도로 퍼져 나가는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주문이었지요. 이 '일정한 속도'는 바로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빛이 전자파의 일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이 위대한 방정식이 오늘날 라디오, 텔레비전 등 소위 무선통신과 전자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지요. 그리고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가 불변하는 '우주 상수'라는 사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탄생시킨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우:** 교회나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공교육의 교육과 주일학교의 가르침이 다른 경우 학생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 오히려 신앙을 잃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주일학교에서 예컨대 다윈의 진화설 같은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이야기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진화론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 때문이 아닐까요?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입시준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예 주일예배에도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진화론자였던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지요.

**우:**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 다윈은 영국 해군 연안탐색선 비글(HMS Beagle)호의 박물학자(naturalist)로 일하면서, 1831년부터 5년간 남미, 특히 갈라파고스(Galapagos) 섬들의 생태계를 조사했지요. 그리고 23년이 지난 후 생물 종의 분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by natural selection, 1859)』이란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우리가 발견하는 다양한 생물 종들(Species)은 원래 한 개의 단순한 원시 생명체, 예컨대 아메바(amoeba)가 오랜 시간 동안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경쟁, 즉 자연선택에 의해 적자생존한 결과라고 주장하지요. 그는 갈라파고스 섬에 서식하고 있는 ‘다윈의 핀치새’(Darwin’s Finches)로 알려진 새들의 다양한 부리 모양으로부터 ‘자연선택에 따는 종들의 분화’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윈은, 다른 저술을 통해 인간(Homo sapiens)도 유인원 즉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실제 종들이 분화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이미 분화(?)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는 현존하는 새들을 관찰했다는 사실이지요. 문제는 지금까지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이나 화석적인 증거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종의 기원』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다윈이 쓴 방대한 공상과학소설(SF)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종의 기원』은 출판되자마자 매진되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이미 무신론적·물질중심적으로 기울던 영국 관중들에게 9회 2사후 만루 홈런을 친 격이라 할까요.

한편, 다윈과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멘델(G. Mendel)은 자신이 원장으로 일하는 수도원 정원에 완두콩을 심고 완두콩의 다양한 형질들이 어떻게 다음세대로 유전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의 실험·관찰 및 수학적인 통계처리를 통하여, 유전형질이 다음세대로 유전될 때는 당시 다윈이 생각한 것처럼 서로 섞여서 점점 희석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즉 유전형질의 원자성(atomicity)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과학자들은 멘델의 이 실험을 물리학에서 갈릴레오가 행한 경사면을 통한 낙하실험에 비견될 만큼 완벽하고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였지요. 그러나 멘델의 실험결과는 당시 다윈의 그림자에 가려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다가, 20세기 초에 재발견되어 ‘멘델의 유전법칙’으로 정립되면서 오늘날 유전공학시대의 문을 열었지요.

우: 다윈에 대한 평가가 매우 비판적이시군요. 진화를 반대하는 창조 과학의 견해를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의 분화는 쉽게 관찰되고 실험되는 현상이며 종의 분화에 대한 화석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생물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생물학자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종의 기원』이 공상과학소설로 분류된다는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뉴턴이 물리현상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했다면 다윈은 생물현상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법칙을 통해 구체적인 메카니즘이 나중에 밝혀진 셈이지만, 종의 기원을 자연적 인과관계로 설명한 『종의 기원』은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해당할 만큼 과학사에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 이미 폐기처분된 소위 ‘성경지질학’(Bible geology) 등 한국창조과학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Science)과 의사과학(Pseudoscience)의 구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뉴턴의 『프린키피아(원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자연철학(오늘날의 자연과학)을 수학적 원리로 접근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과학입니다.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은 경험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다윈의 사변(speculation)에 의한 ‘의사과학’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The idea of Man)은 감정, 착각, 편견, 상식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피조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The mind of God), 즉 자연계시는 수학적 엄밀성이란 ‘좁은 문’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뉴턴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 즉 하나님의 ‘고집’에 순종할 때만 창조주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서양과학혁명이었다면, 얻어진 데이터를 수학적 해석이라는 엄격한 문을 통해서 간단한 자연법칙(Natural Law)으로 정립한 것이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변적인 그리스 자연철학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데 이천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과업이 뉴턴을 포함한 독실한 기독교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고향집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에 관한 힌트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지 않나요?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역학·전자기학·열역학·통계역학 등 고전역학은 물론 고전양자역학·상대성이론 등 자연과학에 수많은 유용한 열매를 맺었지요. 또한 영국의 산업혁명과 현대 기술문명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기도 했고요.



●●  
뉴턴의 『프린키피아(원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자연철학(오늘날의 자연과학)을 수학적 원리로 접근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과학입니다.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은 경험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다윈의 사변(speculation)에 의한 ‘의사과학’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The idea of Man)은 감정, 착각, 편견, 상식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

나는 다윈의 진화론을 생각할 때마다, 앞서기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무신론적 유물론'이란 열매가 그 앞서기들 속에 숨어 있지요.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성경 창세기 1, 2장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허구로 만듦으로써 효과적으로 일격에 성경 핵심 논리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또한 무신론적 유물론은 '20세기 공산주의'라는 열매를 맺는데도 큰 공헌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신학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다윈주의 사상이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원동력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고요.

**우:** 행성들의 운동을 중력으로 설명한 뉴턴도 당대에는 무신론적 유물론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이 행성과 별들을 직접 운행하신다는 믿음에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죠. 뉴턴과 다윈을 그렇게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닐까요. 다윈이 공산주의에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뉴턴이야말로 유물론의 원흉이라고 해야겠죠. 종의 기원을 인과적 방법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창세기 1, 2장을 허구로 만든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물의 종을 창조하셨다라는 '진화적 창조'의 개념을 무신론이나 유물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방법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일테니까요.

**김:** 한 가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소위 17~18세기 서양과학혁명을 주도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막스웰은 모두 독실한 가톨릭 또는 개신교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뉴턴은 30세 이전에 자신의 과학적 연구업적인 『프린키피아』의 대부분을 이미 완성하였고, 그 이후로는 주로 원전(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서연구에 몰두했다고 그의 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을 '무신론적 유물론'자로 비판한 사람들은 뉴턴의 미적분학과 『프린키피아』의 놀라운 성공에 시기질투를 느낀 일부 과학자들이 씌운 누명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이라는 경전을 갖고 있고, 과학자들은 '자연'이라는 교과서, 즉 고유하고 불변의 가치를 지닌 'text'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나 진리 원천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다윈주의 믿음과는 상관없지요.



**우:** 끝으로 다원주의 및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신학과 기독교 신앙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 대우재단 해외석학 초청으로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크(W. Pannenberg) 초청강연회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는데, 그때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그의 신학적 입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7일 만에 끝난 닫힌 사건이 아니라 열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 즉 장(field)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 2장의 창조기사는 고대 중근동지방의 설화, 예컨대 ‘길가메시(Gilgamesh)’등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유신론적 진화론(Deistic Evolutionism)으로 요약되면서, 마침내 기독교 신학이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신론적 진화론은 분명히 진화론입니다. 다만 진화론자들이 난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소위 ‘The God of the Gap’ 역할을 자원한 셈이지요. 결과해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진화론에 문제가 생기면 진화론자들이 해결하도록 뒤야지 왜 기독교 신학자가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박사님 그렇다면 나머지 성경전체를 저기에 맞도록 다시 고쳐써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의 열광에 눌러 감히 질문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기독교인은 성경이라는 경전을 갖고 있고, 과학자들은 ‘자연’이라는 교과서, 즉 고유하고 불변의 가치를 지닌 ‘text’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나 진리 원천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다원주의 믿음과는 상관없지요. 그러나 최근 우리 모두가 소위 ‘스마트’한 전화기로 서로 열심히 연락하는 모습(We are all linked)을 보면서 ‘제2의 바벨탑 사건으로 치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우주론(cosmology)의 소위 “빅뱅”가설도 무신론적 유물론의 열매로 보는데 우 교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하는 소립자 물리학의 초끈 이론(super-string theory)이나 우주론의 다중 우주론(multiverse theory) 등은 물리적 검증 범위를 벗어난 순수 수학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물리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책을 공급하여 나의 기독교 학문과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준 웨슬리 웨스트워스 ‘The Book-pusher’ 선교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한**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휴스턴대학교에서 합성유기화학을 전공하였다(Ph.D.). 미국 스탠포드연구소(SRI), 한국의 KIST연구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기독교학문연구소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과학자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야기』(IVP, 1971)가 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캘리포니아대(UCSB)에서 연구원으로, 나사(NASA) 허블펠로우십을 받아 UCLA에서 연구했다. 저서로는 『블랙홀 교향곡』(동녘사이언스), 『무신론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가 있으며 <월드뷰>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 실낙원 서문

“새 책을 한 권 읽은 후에는  
반드시 옛날 책을 한 권 읽고  
그 후 다시 새 책을 읽는 것이  
바람직한 규칙입니다.”

- C. S. 루이스, <고전 읽기에 대하여>

C. S. 루이스 지음/홍종락 옮김  
A5변형/256면/16,000원

## C. S. 루이스의 안내로 밀턴의 세계관 들여다보기

인간이 낙원을 상실하게 된 배경을 서사시라는 형식에 담아낸 밀턴의 《실낙원》은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중세와 르네상스 영문학 교수였던 C. S. 루이스는 웨일스의 한 대학에 초청받아 밀턴의 《실낙원》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책이 《실낙원 서문》이다.

루이스는 밀턴의 세계관이 《실낙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탁월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밀턴의 《실낙원》을 읽기 전에 읽어도, 후에 읽어도 좋으며, 밀턴의 영향이 녹아 있는 루이스의 소설 《페렐란드라》를 함께 읽어도 좋다.



# WORLDVIEW SPECTATL

## 치유, 선교와 미신 사이

“할렐루야”

시편의 처음과 끝,  
무수히 많은 찬양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 치유와 치유 집회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기독교회는 (1)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병으로부터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즉, 의사와 의약품의 사용을 통해),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고쳐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 왔으나, 동시에 (2) 주께서 항상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 즉 항상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른 태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성경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기독교와 치유(治癒)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치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과 연관된 오해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亂舞)하고 있다. 첫째는 치료를 의료기관의 일이지 교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일 또한 없다고 하는 오해(誤解)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후의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理神論)적 입장이나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입장은 하나님을 불신(不信)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없애거나 기독교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해는 정반대로 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필요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대개는 기도의 응답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특히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깊은 곳에서부터 안타깝고 가련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 그들을 속히 고쳐 달라고 주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참으

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출 15:26 참조).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예도 많지만, 치료해 주지 않으신 예도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언급된(아마도 어떤) 질병을 없애달라는 세 번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고후 12:7-9 참조). 또한 기도하여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치라고 하면서도, 디모데에게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명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디모데전서 5:23).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이 전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거나, 또 병에 걸렸을 때라도 기도하면 항상 그 병이 치유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참 신자들도 살면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병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유행병이 돌 때에는 신자들도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는 평소에 이렇듯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 수많은 성도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신자들이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주께 죄를 범하여 그 징계로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믿음의 약하다는 증거나 죄로 인한 징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병마(病魔)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는 식의 표현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가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질병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과 죽음도 있다(요 11:4 참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성도들이 병상(病床)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어떤 잘못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경은 병에 걸렸을 때 오직 기도로만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약 5:14)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되 (1)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2)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기름은 1세기경에 일종의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눅 10:33,34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렸을 때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존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사와도 상담하여 그 조치를 따르되 (1) 하나님을 의존하며 혹시 주께서 의사와 의약품을 통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혹시 (2) 이 세상의 의술로는 희망이 없고 주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고쳐주신다면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3) 주께서 그 병을 지라 하시면 그때에도 주님을 의존하여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혹시 (4) 주께서 빨리 오라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한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정황이 모두 다 감사한 것이고, 그 모든 정황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주님을 덜 의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것이다. 고난의 한 부분으로 병이 생겼을 때에는 교회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약 5:16)는 명령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

론 주님의 뜻에 따라 병이 낫기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거나(왕하 20:6) 그 이상을 살기도 한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도 필요하면 다시 살려주셨다(왕상 17:17-24; 왕하 4:32-37; 막 5:21-43//눅 8:43-56; 눅 7:11-17; 요 11:1-44; 행 9:40).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마 11:5) 그는 참으로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4:23) 또한 그의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셨다(마 10:1-8).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어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행 4:10; 8:7 참조). 참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 주변의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이렇게 치유를 비롯한 여러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시를 입증하는 신임장과 같은 것이면서 특히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실현되었을 때의 정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천국 맛보기와 같은 것이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른 상태는 더 이상 병든 것이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 뿐 아니라 질병도 없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천국 복음과 함께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한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사도적 이적(apostolic miracles)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치유 등의 이적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시대뿐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교회 시대에도 주께서 원하시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교회들은 그러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치유 자체에 집착하

거나 그런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회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들은 ‘치유 집회’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그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병 낫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열거나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정한 예배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에 함께 모여 주께 간절히 기도하되 (주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되며(참으로 그래야 한다!!!!),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진 것 같은 오해를 살 상황을 연출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자가 환자의 특정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치유가 주어지는 경우 대부분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오해하기 쉽고, 특히 그와 같이 기도한 사람도 오해하기 쉽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을 목격하고 그런 권능을 돈으로 사려 하던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목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야단치던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행 8:15-25). 오늘날에도 그런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도 시대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못 보게 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아나니아(행 9:12, 17-19)와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병을 고쳤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예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목사님 중에도 주께서 과거에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 주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자

신들은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된 것에 이런 저런 방식으로 자부심과 확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말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의 모습을 오해하게 만든다. 치유나 치유 사역을 위주로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런 일이 특정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무엇인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인정하는, 궁극적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려는 태도” 말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에 오해가 많다. 그리하여 은근히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양 하는 분위기와 언어활동이 유행한다. 은근히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어떤 정황이든지 우리들은 그저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몸이 건전한 상태로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 주께서 필요하시면 기도에 응답하여 병을 고쳐주실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직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친히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어떤 정황에서도 특정한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중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높이게 된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도와 종교적 천재는 그야말로 질적인 차이 하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해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이다.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참으로 궁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주께서 그런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부디 우리 주변이 모두 이런 건강한 교회들과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 해당 칼럼은 국민일보 오피니언팀 와이드 칼럼 “월드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6/19일자)

## 혼합된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라는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국민들이 주체 사상이나 극단적인 이슬람 교리를 확립적으로 신봉하는 신정적인 사회가 위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 국민이 100%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독교적인 신정 사회도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런 사회는 선택의 자유를 억압해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형상성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인 자유를 존중하는 기독교와는 조화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다른 종교들은 사탄이 주관하는 거짓 사술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유효한 정보와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로마서 1장 19절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생득적으로 하나님의 실재를 인식하는 능력 곧, 신 인식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인류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실재를 인식하는가? 이어지는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두셨다고 말씀한다. 만물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는 뜻이다. 만물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와 그 증거들을 파악해 내는 인간의 신 인식 능력





에 의하여 신의 실재를 말하는 종교가 성립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두 가지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없었다. 로마서 1장 21~23절 말씀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신 인식 능력과 만물 안에 있는 증거들을 통해 만물의 창조주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그 자체를 창조주로 잘못 인식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여기에 이방 종교들의 명암이 있다.

이방 종교들은 신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연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실재하신다는 증거들이 있고 인간 안에 신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밖에서도 신 존재 논증이 성립될 수 있다. 신 존재 논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논증해 낼 수 없다고 해서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합리성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 인식 능력으로서의 결함이 있고, 합리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후현대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성적 논증에 근거한 신 존재 논증이 불필요하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신 존재 논증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방인들과의 공동 대화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합리적인 신 존재 논증만이 아니라 신화적 판타지를 통하여 기독교권 밖에서도 신의 실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함을 보여준 루이스(C.S. Lewis)의 판타지 소설도 무의미한 일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루이스는 신화(mythology)가 신의 실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인격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의 실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 유물론(materialism)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관이라 여기며 신화적 판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신자들을 기독교라는 건물의 현관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이방 종교는 적어도 신의 실재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삶은 신과의 관련성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은 신이 제시하는 길이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은 이방 종교가 지닌 이러한 특징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방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기독교인은 이방 종교가 제시하는 신관과 구원의 체계를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을 동시에 섬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종교혼합주의(syncretism)를 경계해야 한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혼합주의이다.

종교혼합주의는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에 근거한 낙관적인 종교이해로 합리적인 논증에 근거한다. 종교혼합주의는, 모든 종교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종교혼합주의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기독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신봉하기보다 기독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종교들이 지닌 장점들을 첨가하여 종합할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업그레이드 된 종교생활이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혼합주의는 금상첨화의 논리이며, 은쟁반에 금 사과 논리이다. 금으로 된 상도 아름답지만 그 위에 한 송이 꽃이 놓이면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은쟁반도 물론 좋지만 그 위에 금으로 된 사과를 하나 없으면 훨씬 더 탁월한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종교혼합주의에 빠지는 데는 매우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400년 가까이 목축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출애굽 직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이 추가되었다. 40년 광야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려주시는 물과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부터 물과 양식의 기적적인 공급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이 훨씬 넘는 긴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다는 데 있었다. 이스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과(문학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을 거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 교수이며, 기윤실 신학위원장과 기독교윤리연구소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회 공동대표로서 섬기고 있다.

라엘 백성들은 농사짓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누구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지름길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을 잘 섬겨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전쟁에는 능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농사에는 특화되지 않으신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 배타적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신(主神)으로 섬기되 여호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농사에 한해서만은 농사에 특화된 바알과 아세라를 보조신(補助神)으로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후자 곧 종교혼합주의를 선택했고, 끝내 종교혼합주의의 굴레에서 헤어지지 못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 유지라는 절박한 명분 때문에 종교혼합주의에 빠져들어 갔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현실 속에서 생존이라는 절박한 명분 때문에 종교혼합주의에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크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다. 기독교인은 교회에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경쟁하기보다는 협동에 힘쓰고, 술수를 구사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생계가 달린 삶의 현장에서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유익을 확보하고자 하고, 능력과 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정직의 원리를 무시하며, 모든 술수를 동원하여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원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두 가지 유형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냉엄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은 생존을 보장해 주는 후자의 원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 기독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신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 무엇 때문에? 현실적인 생존의 절박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현장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토정비결이나 관상, 타로점, 조상 숭배 등과 같은 통속적인 이방의 무속종교 관습을 기웃거리는 것도 같은 동기에 의거한 현상들이다. 태어난 연월일에 관한 정보를 조합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해 보려고 시도하는 토정비결이나, 얼굴의 모양과 형태를 조합하여 운명을 알아내고자 하는 관상이나, 카드의 그림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용하여 앞날을 예측하고자 하는 무속적인 종교관습들은 모두 현실적인 삶에 찾아오는 화를 피하고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결혼 상대자들을 얻는 등 생존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 내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들이다.

모든 종교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들만 모아서 종합한 새로운 종교는 훨씬 더 풍부한 종교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종교혼합주의의 논리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종교혼합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단지 논리적인 특성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몸 등 전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의 특성은 그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띤다는 점이다. 종교혼합주의는 이 점을 간과한다.

예컨대 A가 절친 B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모두 털어 놓는다는 것은 B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일 A가 B에게 털어 놓은 비밀 이야기를 B와 별로 친하지도 않은 C, D, E 등에게 모두 말했다는 사실을 B가 알았다면 B는 A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B는 A가 교우의 폭이 넓다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A에게 깊은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이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들 중 외부인에 대해 가장 배타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

다. A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천사 같고 살림도 잘하는 현모양처 B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건넌마을에 B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여인 C가 살고 있다. 이때 A가 C를 또 아내로 맞아 B와 함께 산다면 A는 B 한 명과 살 때보다 두 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C가 들어오는 순간 A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며,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던 B와 C는 질투의 화신이자 싸움꾼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어떤가? 부부 관계가 아무리 친밀해도 두 몸이 하나로 연합되지는 않는다. 부부관계에서는 다만 정신과 사고방식이 서로 닮아가고 생활하는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독교인 안에 들어오시고,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실제로 하나로 연합되는 친밀한 관계다.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이 외부의 존재에 대해 철저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행장(行裝)이 단순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으며 다른 보조신(補助神)들은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단출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또한 종교혼합주의가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종교혼합주의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왜 그럴까?

대체로 종교혼합주의의 대상이 되는 이방 종교들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을 신으로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습성이 있다. 이들은 태양, 번개, 바다, 대지, 강풍 등을 신격화한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이런 세력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철저하게 굴종하는 노예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1계명은 노예가 될 정도의 굴종적인 숭

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세력에게도 노예처럼 굴종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제1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계의 세력들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분석하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그것들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일 번개가 신이라면 번개가 인간을 향해 내려 꽂히더라도 감히 항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번개에 항거한다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개가 신이 아니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번개를 탐구하여 정체를 파악한 후 번개를 피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안해낸 것이 피뢰침이다. 만일 소가 신이라면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도 소를 잡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므로 인간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소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종교혼합주의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마침내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배타적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 오히려 피조물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함으로써 생존 가능성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조물을 신과 동일시하여 섬기는 종교관습이 지배적이었던 동양사회에서는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미했고, 수천 년이 지나도 동안에도 인간의 생존률과 삶의 질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을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획기적인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존률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기독교인은 이방 종교들이 신의 실재를 인정하고 신과의 관계 안에 진정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에다가 이방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을 첨가하는 종교혼합주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생존의 가능성과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왜곡된 종교관습이다. 

#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세대주의 신학(dispensationalism)은 영국의 배타적인 플리머스 형제교회(Separatist Plymouth Brethren)의 지도자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에 의해 시작된 배타적 교회운동으로 당시 제도권 교회인 성공회에 반발하여 일어났으며, 스코필드 관주성경(Scotfield Reference Bible)에 의해 영어권에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많으며, Biola, Moody, Dallas, Grace 신학교 등은 세대주의 신학의 대변자로 알려져 있다. 세대주의에는 점진적 세대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극단적 세대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시스템에 따라 신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개신교 정통신학인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그것이다. 두 신학체계는 구원과 율법, 종말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다비는 자신의 교리를 "재발견 진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한국의 폐쇄적 형제교회와 유병언, 박옥수, 이요한의 구원파, 말씀보존학회, 베뢰아, 그리고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 등이다.

세대주의의 보편적인 교리의 특징은 개혁주의 신학과 네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첫째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회복을 주장한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데, 이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며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이 되고 이방인은 그의 입양된 시민이 된다. 셋째, 세대주의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분류하여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

역사를 무죄(innocence)시대, 양심(conscience)시대, 인간통치(human government)시대, 약속(promise: Patriarchal Rule)시대, 율법(Law)시대, 은혜(grace)시대, 천년왕국(Kingdom: Millennium)시대 등 일곱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말한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하였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주장은 율법과 은혜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렸고, 지금 성도들은 은혜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넷째, 7년 대환란 전 휴거설과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세대주의의 구원론과 빛나간 이단적 종말론이 이단의 생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구원과 율법과 은혜: 개혁신학(Reformed Tradition)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며, 모세의 법에는 시민법과 의식법, 도덕법이 있는데, 도덕법에는 ①시민적 ②영적 ③규범적 3가지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성격이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성취된 구원으로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대주의자들은 율법의 도덕적, 규범적 용도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은혜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율법인 십계명을 존중은 하지만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신약시대라 해서 십계명이 폐해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동섭** 안양에 있는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맹) 총재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국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감독교회원이다.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상담과 가정사역(Ph.D.)을 연구하였으며 18년간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상담과 가정생활을 강의하였다. 세월호 사건 후 TV조선, MBN, 채널A 등에 출연하여 유병언과 구원파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였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등 50여권의 역사와 『자존감 세우기』, 『부부연합의 축복』,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등 15권의 저서가 있다.

약 130년의 한국교회사 속에서 대부분의 교역자들과 부흥사들이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종말론을 가르쳤으며, 그 극적인 내용 때문에 듣는 자들은 쉽게 거기에 빠져들었다. 2000년 안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했던 대형교회 J 목사나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그리고 유병언과 이요한의 구원파도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세대주의 사상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무천년 왕국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천 년은 계시록 20장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 10을 세 번 곱한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세대주의 종말론:** 사도 요한이 본 천년왕국 비전에 대한 정확한 해석문제는(계 20:1-10) 2세기 이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장이 확고해졌는데 다음과 같다.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전천년설'(premillennialism),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그리고 재림 이전이나 이후에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의 지상통치도 없다는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 그것이다.

각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하여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천년설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천년왕국의 천 년을 교회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천 년을 지금 천국에서 이뤄지는 죽은 성도들의 통치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천년설은 "지배적인" 천년왕국의 견해였다. 하지만 세대주의 측에서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지상 천년왕국의 해석"이 19세기 중엽부터 일어나서 보수적인 기독교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왔다.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구분된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징조가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배도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으로 본다. 교회시대의 정점은 휴거이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실한 제자들을 '궁중에서' 만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실 것이다. 참된 교회가 이렇게 지상에서 사라지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악마적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쏟아진다. 이러한 대환란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셔서 원수를 쳐부수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며,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기독교인들을 미래의 어떤 시점(예수의 재림 시점)에만 집착하도록 만들어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주창했던 다미선교회가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은혜로교회는 소속교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피난처에 모여 인위적으로 회개하게 만든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신앙이 아니다.

연대기적 해석을 하게 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율법과 은혜를 대립적 개념으로 분리시켰다. 율법은 모세와 행위, 은혜는 그리스도와 믿음에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율법은 결코 구원이나 칭의의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은 죄인을 칭의하지도 않고 신자를 성화시키지도 않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성향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삶을 분리시킨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등한시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환상적인 이상에 몰두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유포피어나 지상천국을 약속한 이단종파에 미혹되어 현실의 삶을 망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무천년설은 천 년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고 완전수인 10을 세 번 곱한 총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의 천 년을 교회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천 년이란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승리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칼빈과 어거스틴도 이 입장을 취했다. 1000은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시는 충분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천 년은 단지 택한 백성을 전부 구원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다.

20세기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전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을 벗어난 매우 불건전한 해석이다.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은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인터콥, 구원과 등으로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7년 대환란, 휴거, 그리스도의 2중 재림, 천년왕국, 십 사만 사천, 666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종말에 강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예언적 교훈에 대한 지나친 관심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현재의 세계 정세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차츰 이 주제에 마음을 빼앗겨 정복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는다. 이 예언적 교훈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에 위험한 것은 없다. 러시아, 이집트, 이스라엘 및 그 밖의 나라들을 생각하고 에스겔 37, 38장이나 다니엘 7-12장 등의 예언적 관점에서 여러 시기나 경우를 계산하는 데 모든 시간과 생애를 허비하기 쉽다. 한편 영적 의미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점점 무관심하고 등한시킬 수 있다. 물론 예언적 교훈은 성경의 중요한 일부이고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래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가지로 우리들의 일차적인 위험은 균형이나 조화의 감각을 상실하는 데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14:36)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때와 기한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7)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현실과 주어진 사명에 더욱 충성하며 봉사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날과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다(마 24:36; 벧후 3:11,12).

우리는 특별한 ‘종말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기 직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선견자 요한처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때가 가까우니라.”(계 22:10)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말세의 징조는 다음 네 가지이다: ①사람의 징조 “미혹”이다(마 24:4); ②환난의 징조 “난리”이다(마 24:6);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③자연의 징조 “재난”이다(마 24:7-8).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 ④종교적 징조 “이단”이다: 각종 사이비종교가 난무하고 있다(마 24:11,23-24). 우리 모두는 기쁨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핑계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살전 4:11).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를 맞아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불신자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시기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매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베드로도 훈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1-12)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 폴 투르니에의 치유

저자 폴 투르니에 | 역자 정동섭, 정지훈 | CUP | 정가 11,000원  
원제 Bible et medecine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고자 노력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치료사인 폴 투르니에. 저자는 자신의 환자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 또한 몸을 지니고 사는 인간에게 영적, 심리적 영향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를 들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환자 치유 경험을 통해 본 성경적 믿음의 치유 능력을 증명한다. 아울러 삶과 죽음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병에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는 기적임을 역설한다. 성경과 의학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가득한 책이다.



## 고통보다 깊은

저자 폴 투르니에 | 역자 오수미 | IVP | 정가 12,000원  
원제 Creative Suffering

이 책은 고통을 특별히 창조성과 연관시킨 책이다. 저자는 고통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에 대한 용기 있는 반응이 창조적 에너지를 낳는다고 말한다. 좋은 날씨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쁜 날씨가 계속되어야 하듯이 고통과 창조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고통이 있다고 반드시 성숙하거나 창조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 성경과 치유

저자 존 윌킨스 | 역자 김태수 | 기독교연합신문사 | 정가 19,000원  
원제 The Bible and Healing: A Medical and Theological Commentary

『성경과 치유』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의 개념과 질병, 치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질병, 치유의 개념을 신약과 구약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 보건학, 간호학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서로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 WORLDVIEW COLUMN

##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속편한 독백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아담이 태어날 때 나도 태어난다



## 속 편한 독백



**#1** 나는 모유. 엄마의 몸에서 나는 천연의 양식이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아기들에게 꼭 맞는 음식은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분유라는 것이 있다. 이 분유에도 성장하는 아기를 위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어 나를 대신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조성이 늘 일정하다. 늘 똑같은 성분이다. 맛도 일정하다. 아무리 산해진미라도 3일 동안 그것만 먹으면 질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르다.

우선 나는 그때그때 다르다. 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굳이 세계 보건기구 산하의 유니세프에서 공식적으로 모유의 특성을 '가변적'이라고 명기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나는 인류가 생긴 이후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 어떻게 다를까? 맛과 성분이 다르다. 아기가 모유를 찾는 상황에 따라 맛과 성분이 달라진다. 아기의 입술이 엄마의 유륜에 닿는 순간, 태아가 발생할 당시 하나의 기관이었던 피부와 뇌는 즉시 교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기의 상태를 분석한다. 지금 아기의 상태는 수분 2% 부족, 단백질 12% 필요, 당분 20% 필요, 지방질 5% 필요... 분석이 끝나면 엄마의 뇌에서는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고 대사과정을 조절하여 아기의 상태에 꼭 맞춘 모유를 만든다. 그로부터 3시간 후에는 그때의 아기 상태에 맞춘 전혀 다른 조성의 모유가 생성된다. 분유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일곱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 이제 나는 아기의 몸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아기가 나를 빨아들이는 순간 나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순식간에 입 속에서 인후를 지나 식도로 들어간다. 식도는 표면이 매끄럽고 세포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뜨거운 음식이 들어와도 입안에는 물집이 생길 수 있지만, 식도는 견뎌낸다. 식도의 끝을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넓어진다. 위장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앞으로 평생 이 아기가 먹는 것들을 소화해 낼 위장의 표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모유인 나는 부드럽게 위장 세포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직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장 표면은 깨끗하다. 위장의 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젤리같이 부드러운 점액 성분이 덮여 있다. 나 같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디선가 위산 성분이 나타나 모든 음식물을 산산 조각낸다. 피부에 닿으면 상처가 생길 정도의 강력한 위산이지만 점액 성분이 우리의 위장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3** 여기는 위장 속이다. 모유를 먹던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면서 위장은 점점 지쳐간다. 예전에 모유를 먹던 때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으며 아무거나 먹어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절제하지 못하고 먹어치운 음식들이 위장에 흔적을 남긴다. 좀 규칙적으로 먹으면 좋으련만 인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먹어대는 바람에 설 틈이 없다. 위장 근육들이 계속 움직여서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피를 끌어와서 근육과 세포들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또 각종 효소들을 생산해야 하니 지치고 힘들다.


게다가 위장은 생각보다 예민하다. 걱정이나 고민,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영향을 받는다. 평소보다 위산 분비가 많아지고, 흡수 능력은 떨어지며, 피 순환이 적어진다. 그

래서 위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른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그러하다. 태아 발생기의 동일한 신경 조직이 각각 뇌와 소화기관의 신경세포로 발달하였으며, 이 둘은 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뇌와 위장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4** 이제 중년의 위장이 되었다. 지난 40-50년 동안 먹으며 살다 보니 피부에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생기듯이 위장에도 세월의 그림자가 보인다. 역류성식도염은 기본이고, 표재성위염, 위축성위염, 미란성위염 등 각종 흔적들이 나타난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모르는 사이 위궤양까지 있었다고 한다.

뇌와 위장은 연결되어 있다는데, 왜 우리는 늘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받고 살았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고 심리적으로 약해지면서 속도 불편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 가끔은 메스꺼움도 느끼면서 이게 무슨 큰 병이 아닐까 한층 더 긴장하고... 왜 늘 같은 원동력을 돌고 있는 걸까?

**#5**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기존과는 다른 원동력을 돌고 싶다. 이전과는 다른 뇌와 위장의 연결 구도를 갖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포기'라는 다른 궤도에 올라 봐야 하는가 보다. 아픔을 경험한 후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아픔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포기하여 빈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 진정으로 담고 싶은 것을 담아가는 것이 속이 편해지는 길 중 하나인 것 같다. '주도적인 포기'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려놓음의 은혜 체험'은 뇌와 위장의 연결 구도에 다른 상황을 만들어낸다. 역설적이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를 아예 목숨을 맡기는 심정으로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생겨난 담대함이 뇌의 생리적인 기전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만들 것이다.

**#6** 기억나지 않지만 모유의 정서를 상상해 본다. 모유는 지금의 내 상황에 꼭 맞는 성분으로 구성된 개인 맞춤형 메뉴이다. 오늘날과 같이 속 편할 날 없는 때에 내 속에 딱 맞는 모유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들을 회복시켜 줄 것 같다. 모유를 먹이면서 나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 육신의 최초의 만나였던 모유의 감성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 



#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라!

일상영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예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으며 배움을 통해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라!**

일상영성이란, 삶을 긍정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초대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생생한 모습이 되라는 선물이다.



“책을 쓰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일은 나에게 특별히 보람된 경험이었다. 그때그때 이 책에 끼어든 작은 섭리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과 공저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내 떨칠 수 없었다.” - 게리 토마스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값 14,000원

## ■ 삶에 뿌리 박은 영성\_ 게리 토마스의 책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거룩이 능력이다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부부학교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아담을 기다리며 마사 벡크 저 | 녹색평론사

다운증후군 아기를 가진 허버드 박사학위 수여자의 자기고백서입니다. 아이를 가진 때부터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영혼들의 도움과 개인적인 깨달음을 소개합니다. ‘허버드의 독중’이라 할 만큼 완벽하고 이성적인 캐서린이 발견한 내면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기 아담의 임신과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좋겠지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교양시키는지 보여줍니다.

# 아담이 태어날 때 나도 태어난다

차디찬 계절을 지나는 동안 칼날 같은 바람과 함께 내려앉은 서리, 그 위에 등성등성 자란 잡초는 무관심의 조건이자 증거이리라. 농부의 거친 삽이 얼어버린 퇴비를 깨는 소리가 짹짹 울리면, 퇴비의 기지개는 시작된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하지 않았던 퇴비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수많은 지렁이의 꿈틀거림을 보는 순간, 무엇인지 모를 울컥거림이 농부의 가슴을 후빈다.

농부는 이들의 생명이 퇴비가 전해지는 땅 어딘가에서도 단단히 뿌리박힐 것을 알고 있다. 눈으로 볼 순 없지만 땅 속 가득 생명을 전할 것이라는 사실에 새삼스런 사랑의 감정이 샘솟는다. 농부는 자신의 무관심에 웬지 모를 죄책감을 갖는다.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성스레 퍼 나르며 또 다른 생명의 움튼을 기대한다.

사회 관습이 설정한 경직된 기준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마사는 다운증후군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가치를 발견한다. 아담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생명력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고 아담이 전해준 따뜻한 온기로 '갓난아기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발달은 인류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생명 자체의 온기를 경험하지 못한 채 첨단 기술을 누리기만 한다면, 겨울철 꽁꽁 얼어버린 퇴비와 유사한 삶이 아닐까? 아이들의 몸짓, 웃음, 말투 하나하나가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린다. 아이들의 존재는 따뜻한 기운이자 넘치는 생명력 그 자체이다. 움트는 생명 하나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지렁이의 작은 생명 하나를 보고도 그 신비함에 마음이 울컥 거리건만, 사람은 어떡하랴.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그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도 탁월한 모범'이라 표현했다. 물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가진 영혼으로 존재한다. 저자인 마사가 자신의 아들 아담을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인간의 존재를 발견하며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여정은, 동행하는 독자에게도 따뜻함 그 이상을 주는 여행이 될 것이다.

##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서평 <일상영웅>

## 성도, 길을 잃다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현 세기 들어 우리 사회를 더욱 빠르고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사람들은 통일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 교회의 고민이 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이런 신시대에 적응한다는 명분으로 과도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론을 수입하거나 개발해 왔다. 이에 사역자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급격히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발견하고자 애써 시도해 왔으며, 그 결과 교회 속에서 더 이상 통일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다양한 전공, 다양한 강조점,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전문화 등 수많은 형식과 방법들이 난무하며 교회를 향하여 시위한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사역자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자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장의 사역자가 방법론과 형식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삶의 현장과 괴리시키는 이원론이라는 뼈아픈 열매만 남게 되었다.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십자가와 부활 같은 성경의 핵심적 내용을 내세를 위한 도그마로만 인식하여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아무런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패배주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마디로 숲 속에서 지도를 손에 쥐고도 길을 잃은 형국이다. 팀 체스터(Tim Chester)는 『일상영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특별한 삶을 창조하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성도의 평범한 순종의 삶 속에 사실 영웅의 면모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상현** 삼일교회에서 교육 담당 목사로 섬기며, 삼일교회 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SWA)의 시작과 함께 1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사역을 감당했다. 충남대학교 수학과(B.S.),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London Theological Seminary(설교자 과정),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에서 수학하였다.





### 십자가와 부활

저자는 존 스토틀(John Stott)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차세대 복음주의 저술가요, 운동가이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이미 『교회다움』, 『일상교회』(이상 IVP) 등과 같이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설득력 있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의 정체성에 큰 관심을 두고 “교회의 일상성” 혹은 “일상의 제자도” 등과 같은 주제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본서도 “일상성”이라는 저자의 지속적인 관심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색을 지닌다. 여타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접근 방식으로 일상성을 설명하려 했다면, 본서에서는 기독교의 핵심진리인 십자가와 부활 신학이라는 렌즈로 일상의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과 가르침이 점점 크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교회에 커다란 의미와 도전을 안긴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십자가와 삶’(1~2부), ‘십자가와 부활의 연관성’(3부), ‘부활과 삶’(4~5부)이 그것이다. 1부와 2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십자가가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

가 있는지 세밀히 파헤친다. 저자가 초반에 십자가 신학을 설명하면서 밝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에 비추거나 감성적인 느낌에 근거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직장에서 진급이 되거나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거나 사업이 잘되어 큰돈을 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또한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교회 음악 속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 두 가지 모두 성도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저자는 여기에서 멈춰서면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한다(p.23).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된다. 또한 한국 교회가 말하는 ‘제자도’의 본질이다. 저자는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의 확신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 지적한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되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당위’가 되는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촉구한다(p.110). 그 길은 헌신과 희생이지만 궁극적으로 기쁨의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교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개인의 경험이나 종교-윤리적 신념과 감성적 느낌에 근거하여 과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말하듯 한국의 기독교는 독특하다. 마치 정서적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삼는 듯한 흥분된 분위기의 일부 부흥회가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 왔다. '은혜 받았다',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분히 감상적인 만족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매우 비성경적인 개념이 파괴적인 율법주의와 만나 성도들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열심을 내더라도, 교회가 개인의 만족과 복을 받기 위한 바람으로 이루어진 무속적 동기로부터 과연 자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언가 비이성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저자는 십자가의 사랑에 연합할 때에만 올바른 제자의 길로 인도 받을 것이라 경고한다.

체스터는 곧바로 부활로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연결고리를 걸어 둔다. 바로 제자도의 중요한 법칙, '고난 뒤의 영광'이다. 저자는 이를 다양하게 설명한다. 바디매오는 처음에는 '길가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길을 따라 나셨다.'(p.133) 십자가는 속박이었으나 부활은 자유를 선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p.139). 저자는 십자가-부활이라는 방식을 "역사라는 지렛대의 방향을 바꾸는 중심점"으로 강조한다(p.141).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며, 제자도의 본질적인 지표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유지될 수 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따른다."(p.162)

저자는 세 번째로 성도의 삶에서 일하는 부활의 능력을 강조한다. 그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현재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데, 그 힘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인내하게 하는 실체다. 마르다가 오해하였듯 부활은 먼 미래에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게 하는 모호한 능력이 아니다. 부활은 현재를 사는 성도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천국 또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가 오늘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연장선상임을 강조한다. 그는 현실에 임한 부활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세속적 사고방식이 양산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도록 도전받는다. 부활의 능력이 성도를 물질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섬김, 지배적인 세계관 등에서 영원을 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삶은 만족스러워야 한다', '성취도가 높은 직업을 얻어야 한다' 등의 개념은 삶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성경적 의미의 삶이란 장차 계수할 자의 심정과 부활의 능력으로 펼치는 섬김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세속적 성취를 추구하는데서 벗어나 저자가 표현하듯 "소망으로 가득한 모험"이 가능해질 것이다.

### 신학과 삶의 오묘한 조화

『일상영웅』이 가지는 장점은 성도의 삶에 관한 균형감있는 조언을 준다는 점이다. 최근 기독교는 교리와 실천 사이에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성경의 교리를 강조하며 실천과 경험을 애써 무시한다. 성경에 헌신하는 과한 태도가 때로 '근본주의자'라는 조롱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나마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양보 없는 보수주의의 면모에도, 그들의 삶으로 그 가르침에 꽤나 무게감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근간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의 열매를

맺는 듯 보인다. 몇몇 유명 인사들의 입에 담긴 힘든 추문은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경험과 실천을 성경의 가르침과 떼어 놓고, 실천의 주체를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고 있다. 성경이 인용되더라도, 그 사건과 인물을 롤 모델로 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윤리적 실천'이라는 정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 전체의 구속적 맥락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관심 밖에 두는 경우도 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결국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본서가 유익한 가장 큰 이유는 성도가 걸어야 할 올바른 삶의 기초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신학적 기초에 두기 때문이다. 책의 초반부를 꽤 중요한 신학적 논점과 성도의 삶을 연결시키는데 할애한다. 성경의 내용에 집착하는 맹목적인 근본주의도 아니며, 은근히 인간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신율법주의도 아니다. 한 마디로 저자는 신학과 삶의 오묘한 조화를 말하고 싶어 한다. 본서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신학적 기초를 이룬 삶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게다가 성도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해하여 신학적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패턴"이란 표현으로 신학의 균형을 잡는다. 십자가 신학만 과도하게 강조되면 분리주의적 경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반면 부활 신학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지나친 승리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쉽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불균형이 실재했고, 그 결과로 교회에 큰 아픔을 안기기도 했다. 책 속에 그러한 분열과 아픔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지

는 않지만,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신학과 삶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본서는 신학 전반을 진술하는 교리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의 경건을 위한 제자도의 교과서도 아니다. 사실 교리와 삶을 연결시켜 균형을 잡으려 집중하면서, 본서의 흐름 속에서 언급되었으면 유익했을 주제가 생략된 듯한 느낌이 든다. 제자도에 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이나 십자가 및 부활 교리와 기독교 세계관의 연관성 등이 그것이다. 좀 더 조밀하게 구성했다면, 동일한 볼륨 안에서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본서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주제를 파헤쳐 나간다.

저자는 책의 끝에서 두 명의 일상영웅을 소개한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호빗 정원사 샘은 평범한 능력과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낮은 계급의 '일반인'이었으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일반인이 간직해 왔던 영웅의 진면모를 멋지게 드러내었다. 또 한 영웅은 저자의 어머니이다.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이었으나 목회자의 아내요,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평생을 사랑의 실천을 보이며 살아내신 분으로 소개한다. 거기에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있었으며, 찬란한 부활의 빛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며, 인식해야 할 정체성일 것이다. 유명해지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일상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영웅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

서평 <권리와 자유의 역사>

# 기독교 전통이 법과 권리의 형성에 미친 영향

## 1.

저자인 존 위터 주니어(John Witte Jr.)는 서문에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30년이 걸려서 계몽주의 이전의 서구 전통에서 권리 담론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p.11) 이어서 말하기를 “서구의 전통 중 특히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에서 권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따라가 보려고 한다”(p.12)고 하였다.

서문(p.19)에서 저자는 “프랑스 혁명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전조인 동시에 근대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전조라고 묘사했다”는 어느 역사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칼뱅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p.19).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법학자인 장 칼뱅(1509-1564)의 운동은 제네바에서 생성된 이후 250년 동안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북미의 많은 지역을 휩쓸었다.”(p.19) “칼뱅의 법사상과 정치사상 역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등 상반된 두 성향에 널리 영감을 줄만큼 충분히 변화무쌍하고 선동적이었다.”(p.19-20)

이 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서구 전통, 권리 담론,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칼뱅주의, 자유민주주의, 근대 전체주의이다. 그러나 서평자가 첨가할 가장 큰 키워드는 “기독교 전통과 법 및 권리의 형성”이다.



**김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졸업,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및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Fulbright fellowship)를 졸업했다.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창설하고(1982), 교수로 재임하다가 현재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표작은 『법과 경제질서』 4부작(2009-2014)과; 『법과 종교』 3부작. 1) 『종교와 제도: 문명과 역사적 법이론』(해롤드 버만의 원저, 1992), 2) 『칼뱅주의 논쟁: 인문사회과학에서』(공저, 2010), 3) 『법과 혁명1: 서양법 전통의 형성1』(해롤드 버만의 원저, 2013)이 있고; 『한국 법학』 3부작(2007-2009)이 있다.



2.

이 책은 한국의 서점 어디에 꽂혀야 할까? “서구 전통”을 보면 서양사 분야에, “권리 담론”을 보면 법학 분야에, “프랑스 혁명”을 보면 서양사 분야에, “칼뱅주의”를 보면 신학 및 종교학과 기독교 관련 서적에, “계몽주의”를 보면 철학 및 사상사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와 “근대 전체주의”를 보면,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법학 분야에 꽂힐 것이다. 한국의 대형서점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일까? 뜻밖에도 법학 서적이 차지하는 공간이 가장 작다. 그 이유는 법학 책의 90%가 각종 시험을 목표로 하는 수험서이기 때문이다. 법학 내부 분야에서 이 p. 즉 『권리와 자유의 역사』는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우선 권리 일반의 논의이니 법학 일반 또는 법학 통론에 해당된다. 책의 용어대로 인권이라 하니 기본적 인권 얘기라면 헌법 서가에 꽂힐 수 있을까? 또 “서구 전통의 권리 담론”이라고 하니, 서양 법제사와 법 철학사에 해당된다. 그런데 한국의 서양 법제사는 2013년에 출판된 해물드 버만의 『법과 혁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주로 19세기 독일의 민사법을 취급해 왔다. 한국의 법철학은 주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기준으로 몇 사람의 전형적인 법 철학자들

을 취급해 왔다. 따라서 수험서가 대중인 한국 대형서점의 법학 분야 서가에 서평 필자가 지적한대로 여러 분야에 이 책이 꽂힐 확률은 낮다.

3.

칼뱅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 책은 당연히 종교학 및 신학 분야에 속한다. 또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 관련서이다. 그러나 최근의 약간 놀라운 예외를 제외하면,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권리나 법의 문제를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한 예는 거의 없다. 당연히 칼뱅주의 연구자는 이 책이 신학 사상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목표 주제가 법, 권리,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학과 중첩된다는 것을 알고 다소 당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4.

전공자를 제외한 넓은 범위의 지식 교양층에게는 이 책의 전제인 근대 법의 권리 개념이 프랑스 혁명의 계몽주의에서 출발했는가, 또는 기독교 전통인 칼뱅주의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약 30년이 걸렸다는 이 책의 내용이

1530년대의 칼뱅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왜 지금도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

5.

따라서 필자는 존 위티 교수가 동아시아인 특히 2010년대의 한국 독자를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서구 전통에서의 권리 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독자를 위해 다소 다른 언어로 배경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한국의 지식 교양층과 대학, 학계에서 익숙한 학문 및 지식 분류법은, 한국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사와 문명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지구촌”을 지향한다는 2015년에도 한국 문명과 문화는 인류 문명사의 주된 흐름에서 판단할 때 상당한 거리가 있고 특수성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절화나 폐쇄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인가? 한국인들은 개화기 이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리고 지식의 전문화로 근대화화 산업화를 성취할 때까지 한국인들이 원래 지녀왔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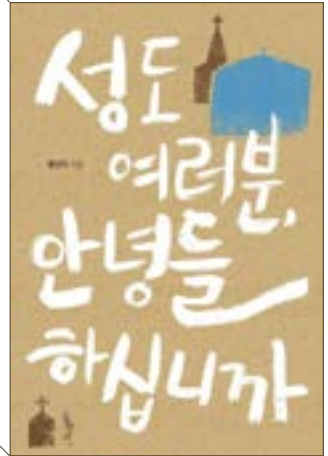
식에 대한 태도를 자랑스럽게 견지해 왔다. 즉, “대학 이후부터 전공은 다른 전공과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 어떤 주제를, 여러 전공의 연구자 또는 복수 전공자가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별로 성과가 없는 것이다.” 서양 근대 학문이 근대 대학에서 출발할 때, 즉 신학, 법학, 의학의 초창기에 신학과 법학이 거의 쌍둥이 형제와 같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 법학의 주된 역할은 사법 관료와 행정 관료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법과 권리를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법학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신학의 1차적인 문제도 될 수 없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거라는 생각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이 이 책 『권리와 자유의 역사』의 내용이다. 또한 한국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자유화 · 민주화”조차도, 오로지 정치권력의 이양이나 정치적 변동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서양 문명에서는 어떠한가? 이 책의 저자 존 위티 교수의 스승인 해롤드 버만 교수는 서양 문명의 특징을 “법과 종교”라는 이중적 주제로 평생 연구하였다. 그는 문명사에서 주요 혁명을 “법과 종교”의 문제로 환치하여 생각하였다. 즉 이 책의 저자가 『권리와 자유의 역사』를 서양사의 주제로 내세운 것은, 이미 해롤드 버만이 약 60년에 걸쳐 서양 문명의 주된 테마가 종교와 법의 상호 교호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저자를 가르치고 이윽고 에모리 법과대학에서 다시 동역 관계로 법과 종교 센터를 키워나갔던 해롤드 버만 교수의 대표작 『종교와 제도: 문명과 역사적 법이론』(원저 1974년, 한국어판 1992년), 『법과 혁명1: 서양법 전통의 형성』(원저 1983년, 한국어판 2013년), 『법과 혁명2: 근대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원저 2003년, 한국어판 출간예정)을 총론으로 한 칼뱅주의 각론이다. 



황인각 저 | 홍성사

서평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내가 아는 황인각 교수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교회에서 결코 장외의 방관자나 생각없는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내에서 일하고 호흡하는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각은 한 사람의 신앙인의 순수한 시각이며, 설교단 위에 있거나 교회의 각종 관리 지표나 집단의 영광이나 조직적 목표의 성취에 있지 않다. 그런 그의 눈에 정직하게 비친 한국교회의 풍경은 심각하다. 이 책은 그가 이 교회의 위중한 모습을 동료 신자들에게 고하는 글이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말하나 어쩌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 각자가 상처받거나 모순을 겪은 문제가 다르고 개혁이란 흔히 그 개인적 경험에 치중한 치유책을 가리키기 쉽다. 누구는 재정 운영의 문제를 말하고 누구는 설교의 문제를, 또 다른 누구는 제도과 리더십의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 책은 보다 근본적이고 평이한 문제, 그런 만큼 결코 잘못되어서는 안 될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제자되기와 교회 생활 사이에 오늘날 둔각의 각도가 벌어진 것을 그는 아파한다.

이 책을 읽으면 진리란 오묘하기 이전에 정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구함이 정대하지 못하면 실행의 오묘함은 차라리 독이 된다. 복음이 바르지 못하면 감동적인 설교는 독이다. 수학 문제에 비유하자면 틀린 식을 적용하고서 계산만은 소수 이하 5자리까지 정밀하게 해도 소용이 없고, 옷 짓기에 비유하자면 재단이 잘못되었는데 꼼꼼한 바느질이 옷을 살려낼 수 없는 것

윤원철 카이스트(KIAT) 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과 같다. 교회가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며 밖으로 진리를 전도한다고 하고 안으로 신앙을 교육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복음적인 중심을 놓치고 나면 그 모든 말들과 열심과 전략은 참으로 허황된 것이고 심지어 미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쉬운 것을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고 그 당연한 것을 붙잡자는 것인데, 왜 그게 그리도 어려운 것이 되어 있을까?

한 개인이 회개하고 생각과 행실을 바꾸어 신자가 되듯이 교회도 이 세상의 정신을 비판하고 본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교회 내의 문화, 즉 생각, 판단, 기준, 목표, 방법 등은 사회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 내에 우리의 인간적 욕심과 안이함으로 인하여 사회의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 부흥하는 길을 망각하고 사회단체로서 부흥하는 길을 추구한다. 복음을 값싸게 만들었고 세상의 성공을 끼워파는 듯한 모습마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세속적이 되는가 하면 한편에선 종교적 위엄만을 찾아 강조하여 율법화되는 양극화된 모습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것도 역시 교회의 조직적 성공에 기여하기 때문이라 본다면 너무 아픈 반성일까? 어쨌든 이 책에 담긴 이 모든 관찰은 우리 신앙의 동기가 과연 순수한가에 집중된다. 애초에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려 할 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집단에서 갖게 되는 안이함과 집단중심적인 사고는 우리를 초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도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멀어지게 한다. 신앙적 열심이 신앙의 근본을 배반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이 세대 내에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책을 덮어도 맴도는 질문이다. 

이 글은 <쿠퍼회> 313번째 서신(홍성사, 2015. 5)에 실린 것입니다.





미디어시대, 바른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기독교 언론인의 양성소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2기가 아주 새롭게 10월에 시작합니다.

CMCA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2기 모집

2015.10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www.cmca.or.kr](http://www.cmca.or.kr)



QR 코드로 바로가기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5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11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565,000		기타급여	221,000
	일반회비	5,355,000		소계	3,821,000
	기관후원금	3,4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13,000		사무실관리비	385,000
	CTC후원금	300,000		통신비	611,670
	기타후원금	1,000,000		우편료	69,740
	VIEW후원금	4,100,000		소모품비	508,070
	학술지원금	1,000,000		비품	57,200
				식비	329,800
		복리후생비		745,130	
		퇴직연금		293,240	
		교육비		150,000	
		회의비	259,300		
		기타	364,890		
		소계	4,324,04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318,900
				소계	318,900
	소계	17,593,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515,645		발송비	819,280
	소계	515,645		소계	3,319,280
세계관일반등록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일반등록	세계관강사로	400,000
	세계관기타수입	0		세계관행사준비	280,760
	소계	0		소계	680,76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 강사로	400,000
	학회행사수입	2,020,000		학회자료제작비	1,046,500
	학회지판매	15,000		학회홍보및기타	2,079,130
	학술자심사비	700,000		학회기타	100,000
	학술지게재료	388,720		학술자심사료	0
	학회기타수입	1,000,000		학회기타	0
	소계	4,223,720		소계	3,625,630
당월 수입액	22,332,365	당월 지출액	16,089,610		
전월 이월액	31,272,954	차월 이월액	37,515,709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5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소계	1,9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188,000	
		인쇄비		2,636,700	
		기타제작비		50,000	
	소계	2,100,000	소계	4,334,7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도서판매비	71,050		복리후생비	347,070
	기타수입	160,570		퇴직연금	137,730
				관리비	30,000
				식비	9,000
			소계	798,800	
		소계	2,731,620	기타	2,000
			소계	2,000	
당월 수입액	4,831,620	당월 지출액	7,035,500		
전월 이월액	47,748,203	차월 이월액	45,544,323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 마감)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고은, 김봉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원근, 박지만, 생명의강, 안용주, 영음사, 유성욱, 이수형,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한재승, 함께하는교회 5천 공승근,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미정, 김방민,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정심, 김정은, 김재우, 김대영, 김태윤, 김항아, 김현경, 김혜창, 노숙, 노주하, 박광재, 박상규, 박승룡,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현,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인수, 이종희, 이항숙, 임은순, 임찬석,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헌일, 전광학, 전정진, 전종국, 정봉현, 정한규,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박사라 7천5백 고상선, 김나실, 김상욱, 김은민, 김재우, 박대희, 박현민, 방성기, 이병주, 이세호, 이은순,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최경복 1만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강효식,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곽은이, 곽장민,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갈원명,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은, 김광순, 김규우, 김근배, 김기현, 김나경, 김남일, 김남진, 김대용,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례,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경, 김세원, 김세중, 김수진,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숙, 김영완, 김영호, 김용숙,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혜, 김은혜, 김일,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종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판민, 김학,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섭, 김홍재, 김호수, 나윤숙, 남서희, 리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재환, 박광근,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근안, 박두식, 박두한,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애란, 박용성, 박은영, 박은주,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진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이론, 배인교, 백경은, 백현준, 변영순, 변희지,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영규, 손한나, 손현덕, 송대영,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선영, 신성자, 신지영, 신진선, 신진웅, 신현정, 신현주, 신희균, 신호기, 신희영, 심명섭, 안남주, 안병열, 안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근, 양예찬,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성호, 오은영, 오지선,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의선,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명심,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갑두, 이강, 이경숙, 이경직, 이계실, 이관철, 이규현, 이기서, 이기훈, 이길형,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봉근, 이상급, 이상기, 이상우, 이상수, 이상환, 이상택, 이상주, 이수연, 이승영,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주, 이은혜, 이장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종환, 이준식, 이지숙,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학성, 이혜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미리, 임소현, 임수연, 임우일,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현영,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영창, 장옥경, 장은혜(양종태), 장인수, 장진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장원, 전중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섭,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상, 조은함, 조이수, 조주영, 조지현, 조현용, 조혜경, 조혜선, 주경식, 진정용, 차봉준, 차유림, 차장규, 최상열, 최성호, 최세진, 최 영, 최영수, 최윤환, 최진우, 최한민, 최해경, 최효영, 추진연, 태영숙, 하성남, 하진호, 하현진, 한인관, 한혜실, 한희수, 함부영, 허연, 허찬영, 허 현, 현승근, 현하나, 홍구화, 홍순호, 홍정수,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세환, 황이서, 황인경, 황태연, 황해숙, 황혜정 1만5백 김태우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선, 조영숙, 조동원 1만7천5백 김동찬 2만 김대훈, 강승모, 강용란, 김세광, 김영옥, 김용식, 김민숙, 김정호, 노경순, 노용환, 박종국, 박창규, 배성민, 변우진, 석지연, 우시정, 이 건, 이길규, 이명희, 이인아, 임 영, 조창근, 최승호, 한진영, 홍세기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오익석, 오하나, 우병훈,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4만 이종철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박민식, 서진희, 손봉호,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5만5천 이덕영 6만 임현식, 황정진 7만 최태연 8만 권정아, 이예진 10만 김미영, 김의원, 박상은, 송인규, 윤완철, 이기섭, 전광식, 채기현 12만 조대현 20만 홍숙의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김원수 100만 권성윤, 엘비전 400만 박은철

계 14,143,000원

##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언약교회, 예성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3,450,000원

## 광고후원

삼성전자, 엘타워, I&S법무법인, 흥성사, DCTV, 오하우스코리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WORLDVIEW NEWS

## [교회별 신청] 청소년 기독교미디어 캠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개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사역자들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청소년 기독교미디어 캠프를 교회별로 신청 받습니다. 신청하신 교회의 수련회 일정 중 1박2일간(48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커리큘럼

**1일차 프로그램 :** 영화감상과 마음열기 /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들기 / 성경적 세계관과 스토리텔링 / 팀별 시나리오 작업하기

**2일차 프로그램 :** 촬영 / 편집틀 익히기 / 실습 / 상영회 및 시상식

■ 주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교육문의 02-745-7237, cmca@worldview.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 삼일교회에서 만나요!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이 삼일교회 C관 2층에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멘토 장수영 교수님(포항공대 산업경영) 및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 일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굴다리 지나 맞은편 오른쪽)

■ 문의 02-754-8004

## VIEW 입학 설명회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세계관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 안식년을 맞아 공부하기 원하시는 사역자 분들께 추천합니다. 문의주십시오.

■ 일시 7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합정역 7번 출구, 뒤돌아 200M)

■ 문의 02-745-7237 (담당 : 홍정석 간사)

## [2차 이사회] 2015년 2차 이사회가 있습니다!

2015년 2차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상반기 사역을 검토하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사님들과 해당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 일시 7월 20일(월)

■ 장소 엘타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임원수련회] 2015년 임원수련회가 8월에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수련회가 2015년 8월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준비한 자리가오니 임원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8월 21일(금)-22일(토) 1박2일

■ 장소 별도공지



**[학회보고]**

**5/30(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학문”**

참석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조강연 영상과 논문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로그인 필수, 회원에 한하여 다운로드 가능)

■ 문의 02-754-800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7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16
2	17
3	18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4	19
5	20 2015년 2차 이사회
6	21 임원수련회 TF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월드뷰> 8월호 발행
15	30 VIEW 간사모임 VIEW 입학설명회
	31 대학원생 모임

- 6/29~7/1(수) 2015 ICCHES 제7회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  
“진리와 기독교적 학문” 경주드림센터
- 7/18(토)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 7/20(월) 2015년 2차 이사회
- 7/29(수) <월드뷰> 8월호 발행
- 7/30(목) VIEW 간사모임
- 7/30(목) 오후 7시 30분, 100주년기념교회사회봉사관, VIEW 입학설명회
- 7/31(금) 오후 5시, 삼일교회 C관 2층, 대학원생모임



-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백석대 前 부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M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 공동회장 및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생명학교 교장), 박신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IFER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홍준 (한동대 교수)
- 사무국**  
 사무국 본부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대표인사: 신효영, 인사: 홍정석, 김고은
- 후원교회 및 단체**  
 100주년기념교회, 개봉교회, 광주세안안교회, 금성교회, 글로벌한기독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대구성덕교회, 마포중앙교회, 백석대학교, 부천침례교회, 빛과소금교회, 산정현교회, 삼일교회, 새길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송탄제일교회, 수영로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안성중앙대학교교회, 연안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주빌리채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환돌교회 (가나다 순, 총30교회)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학회장(연구본부장):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국제·대외협력부회장: 박신현 (고신대 교수), 연구부회장: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회장: 손병덕 (총신대 교수)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교수), 발행인: 김승훈 (생병원 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이승구 (합신대 교수), 조성돈 (실천신대 교수), 조영길 (S&S 법무법인),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학회이사: 강영안 (서강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윤완철 (카이스트 교수),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조무성 (고려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황호찬 (세종대 교수)  
 분과장: 경제/경영 분과장: 이홍구 (건국대 교수), 교육 분과장: 박영주 (아산대 교수), 문화/예술 분과장: 서성록 (안동대 교수), 법학 분과장: 조영길 (S&S법무법인 대표), 사회복지 분과장: 이상무 (평택대 교수), 상담/심리 분과장: 전요섭 (성결대 교수), 역사 분과장: 권태경 (총신대 교수), 의학 분과장: 김지원 (백석대 교수), 융합 분과장: 이우성 (SIFER), 철학 분과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운동본부**

본부장: (공석)  
 대외협력위원장: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 국제협력위원장: (공석) / 중국지역위원장: 정수균 (신교사) / 지역관리위원장: 박신현 (고신대 교수) / 대학청년위원장: 최홍준 (한동대 교수) / 언론위원장: 강진구 (고신대 교수) / 세계관사역위원장: 김승욱 (중앙대 교수)

**월드뷰\***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교수), 박상은 (생병원 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이승구 (합신대 교수), 조성돈 (실천신대 교수), 조영길 (S&S 법무법인),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편집인: 신효영, 교정/교열: 김선경, 디자인: 황정희, 제작: (주)세상바로보기  
**도서출판 CUP\*** 대표: 김혜정, 마케팅장: 윤여근  
**CMCA 프로덕션\*** AD: 홍정석

**교육본부**

본부장: (공석),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교재개발위원회 위원장: 최태연 (백석대 교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Christian Media & Contents Academy\*** 고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 원장: 조정민 (베이지커뮤니티 교회 담임목사)  
 운영위원: 신국원 (총신대 교수), 이승구 (합신대 교수), 강진구 (고신대 교수), 유지은 (FD)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원장: 양승훈, 이사: 조영택, 김명준, 박신일, 김주영, 주임교수: 전성민, 강사: 이계현, 유승훈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CTC\*** 대표: 유경상, 팀장: 안성희

# 둘 다 옳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둘 중 무엇이 옳은지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  
내가 참으로 믿는지 결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침묵.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동의하지도 않지만,  
그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함을 침묵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 죽고 사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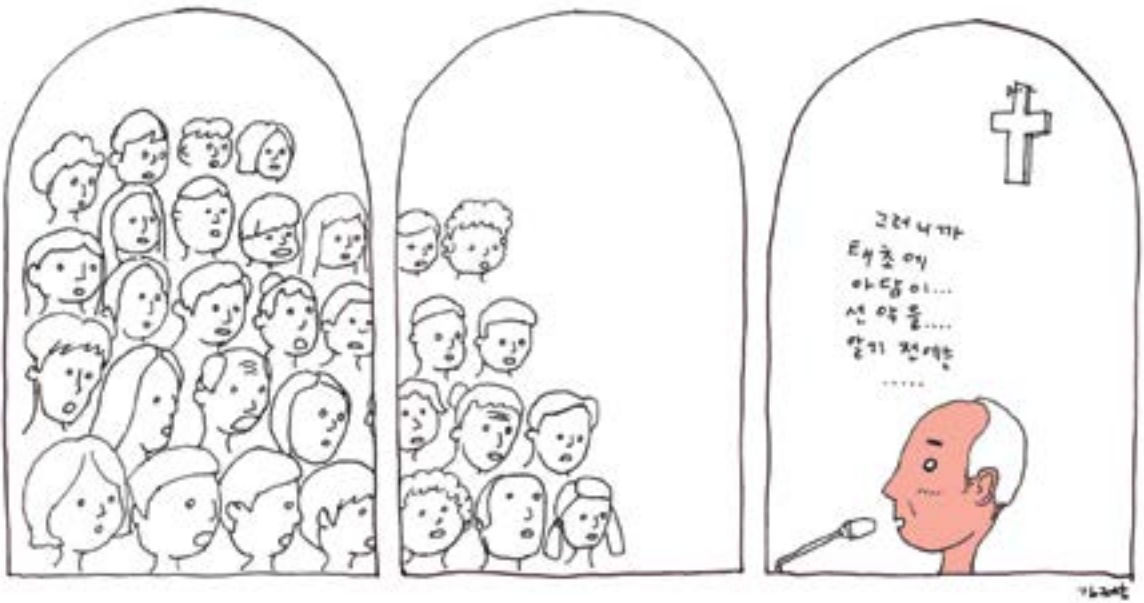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침묵이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면,  
당신이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게 된다고 해도 말이에요.

다만,  
그 목소리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용과 겸손을 담아  
거기에 유머도 함께라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것이 참말이나 거짓말이나가 당신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정말로 믿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C.S.루이스 



## 건전한 판단

누드촌에 모인 누드족이 어느 날 자신들은 그렇게 퇴폐적거나 불경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점잖기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께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사님은 목사로서 예배 인도를 거절할 수 없어 초청을 수락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에게 고민이 생겼다. 누드촌에 가는데 옷을 입어야 할지 벗어야 할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바울을 보면, 옷을 벗고 가는 것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나무랄 데 없는 판단이다.

한편 누드족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과연 옷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하다 할 수 있는지. 많은 논란 끝에 이왕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 경건하게 드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예배 때만은 옷을 입기로 결정했다. 건전한 판단이다.

나무랄 데 없고 건전한 판단들이 어떤 광경을 만들어 냈을까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